



3분기 세계PDA 판매 8.7% 감소

지난 3분기 세계 PDA 판매량이 작년동기보다 8.7% 줄어든 210만대를 기록했다고 PC월드가 시장조사기관 IDC의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번 집계에는 전화 기능을 갖춘 제품과 팜원의 '트레오 650' 같은 스마트폰은 제외됐다. 하지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제품은 집계에 포함됐다. 업체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 팜원이 이 기간에도 34.7%의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지켰다. 하지만 팜원의 출하량은 작년 3분기보다 12.7%나 줄어들었다.

2위는 HP로 작년 3분기에 비해 출하량이 11.7% 늘어났다. 오랫동안 3위를 지켜왔던 소니는 일본 시장에 주력하기 위해 연초 세계 PDA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는데 이의 영향으로 이번에 5위로 밀려났다. 3위는 세계 최대 PC업체인 델이 차지했고 미텍이 4위를 차지했다. 델과 미텍은 팜원과 HP에 비해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든 후발업체다.

IDC의 한 관계자는 "음성 기능을 갖추지 않으면 세계 PDA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다"면서 "PDA와 경쟁관계에 있는 휴대폰 업체들이 개인정보관리 기능을 높임에 따라 PDA 매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델, 日 고성능 컴퓨터시장 진출

세계 PC시장의 거인 델이 초저가 범용 서버를 앞세워 일본의 고성능 컴퓨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

델은 내년 초 다수의 범용 서버를 연결해 고속 연산 처리가 가능한 고

성능 컴퓨터를 출시, 일본의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지아이신문 등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미 올해 초 저가 PC를 전면에 내세워 일본 PC시장에 가격 인하 바람을 몰고 왔던 델이 이번에는 고성능 컴퓨터시장으로 눈을 돌림에 따라 일본 컴퓨터 업계는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델이 일본 시장에 내놓기로 한 고성능 컴퓨터는 기존 고속서버의 10분의 1에 불과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범용 서버 다수를 연결한 그리드 컴퓨팅시스템으로 알려졌다. 약 100대 이상의 서버를 연결해 고속 컴퓨터의 기준이 되는 약 2테라플롭스(테라=1조) 이상의 고속 처리를 가능케하는 시스템이다. 기본 운영체제(OS)에는 리눅스가 채용될 예정이다.

고성능 컴퓨터 시장 진출과 관련해 델은 "내년까지 총 50건을 수주할 계획"이라며 "일본내 범용 서버 시장에서 NEC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델은 일본내 컴퓨터 판매·서비스업체인 베스트시스템즈와 제휴해 고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약 10명의 전담 조직을 조만간 설립할 계획이다.

델은 미국에서 이미 고성능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 일본이 사실상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부가가치 또한 높다고 판단해 일본시장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델의 고성능 컴퓨터 시장 진출 계획이 알려지자 NEC, 후지쯔 등 일본 컴퓨터 업계는 향후 델의 저가 공세를 어떻게 막을 건인가를 고심하고 있다. 저가PC 분야 처럼 고성능 컴퓨터 분야에서도 델이 단번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비슷한 수준의 저가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NEC는 "델과는 범용 서버시장 주도권을 놓고 미국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관건은 역시 서버 가격이 되지않겠느냐"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인텔 칩을 사용한 범용서버 세계 시장에선 NEC가 22%로 1위이며 델이 19%로 2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1~3월은 델이, 4~6월은 NEC가 각각 수위를 차지하는 등 두 회사간 경쟁이 붙을 뻔하고 있다.

도시바, 사상최대 반도체 투자

일본 도시바는 'HD DVD' 방식의 구동장치(드라이브)를 장착한 노트북 PC를 내년 말 출시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이 보도했다.

도시바의 신형 노트북은 첫째 100만대 출하를 목표로 삼성전자와의 합작사인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로지(TSST)에서 양산될 예정이다. 가격은 20만~30만엔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PC업체 중 차세대 DVD 방식을 채택한 제품을 내놓은 곳은 도시바가 처음으로 소니·삼성전자 등의 '블루레이 디스크' 진영과의 DVD 규격 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NEC도 내년 안에 동일한 방식의 노트북 PC를 내놓기로해 차세대 DVD 규격의 통일화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산요전기, 카네비게이션시스템용 3D 디스플레이 개발

산요전기가 카네비게이션시스템용 3차원(3D) 입체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요전기는 이 제품을 차세대 카네비게이션용으로 내년에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의 입체영상 표시 장치와 달리 고해상도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교차로, 건물 등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교통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산요는 향후 휴대폰 등에도 이번 개발한 입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세계 최소 400만화소 디지털 카메라



교세라가 세계 최소의 400만화소 디지털 카메라 '콘택스 i4R'을 도쿄 WPC엑스포에서 선보였다. 콘택스 i4R'은 4.19메가픽셀 CCD와 6.5mm /F2.8 칼짜이즈 렌즈를 채택했다. 크

기는 94 x 38.5 x 21mm. 교세라는 12월에 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가격은 4만엔(미화 365달러)다.

소니, '워크맨' 브랜드 MP3플레이어 첫 출시

일본 소니가 자사 대표적인 휴대형 오디오 브랜드 '워크맨'을 단 MP3플레이어(모델명 NW-E99, NW-E95)를 처음으로 출시했다.

이 제품은 현재 휴대형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애플 '아이팟'을 겨냥한 것으로 음악 저장용량은 아이팟에 비해 적은 대신 배터리 수명을 70시간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이 제품에서 소니는 그동안 고수해온 독자 음악 규격 'ATRAC'과 함께 디지털 음악파일의 사실상의 표준인 MP3 포맷을 함께 지원해 시대의 흐름을 따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NW-E99와 NW-E95 제품은 각각 1Gb와 512KB 플래시메모리를 탑재했으며 가격은 240유로(303달러)와 200유로(252달러)다. 그러나 이 제품은 유럽에서만 판매하고 아시아와 북미 지역 판매 계획은 아직 없다. 무게는 40그램이며, 두께도 1cm에 불과하다.

소니, 최신형 DVD캠코더 발표

일본 전자메이커 소니가 1.07메가 픽셀 CCD이미지센서, 3.5인치LCD디스플레이, 32~32mm/F1.8~2.3칼 짜이스 줌 렌즈 등을 구비해 직경 8cm DVD-RW나 DVD-R디스크에 60분간의 디지털 비디오 콘텐츠를 녹화할 수 있는 최신형 DVD캠코더 'DVD캠



디캠 DCR-DVD301'을 4일 도쿄의 본사 쇼룸에서 선보이고 있다.

인텔, 차세대 반도체 개발 박차

인텔이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반도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은 기존의 실리콘 기반 반도체 기술이 오는 2013년 이후에는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 포스트 실리콘 기술 개발에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실리콘스트라티지스가 최근 보도했다.

인텔이 연구하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트라이-게이트 트랜지스터, 탄소 나노튜브, 실리콘 나노와이어, III-V 기반 칩, 스핀트로닉스 등이다. 인텔은 오는 2013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같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실제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같은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 2007년과 2009년, 2011년에 각각 45나노, 32나노, 22나노 노드에서의 트라이-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미 주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100여개에 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초기 탄소 나노튜브와 나노튜브 FET 등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텔의 한 관계자는 탄소 나노튜브 등 차세대 반도체 연구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22나노미터 노드에서의 벌크 실리콘은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소 나노튜브 반도체는 같은 크기의 전통적인 트랜지스터보다 속도는 3배 빠르지만 소모 전력은 비슷하다. 또한 회로 선폭이 나노미터 수준이어서 현재보다 만배 정도 집적도가 높은 칩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PC시장 2008년까지 25% 성장

무한한 잠재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 PC시장을 놓고 다국적 PC기업들과 현지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IT붐이 불면서 일부 지역에서 PC와 노트북, 해적판 소프트웨어가 날개 돋힌듯 팔리고 있는데 내년 3월, PC 수입관세가 제로로 떨어지면 다국적기업과 HCL·위프로·제니스 등 토종업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인도 PC시장은 연간 310만대 규모로 금액으로는 16억달러 수준. 이를 다국적기업과 토종 인도 브랜드가 각각 26%와 21%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른바 ‘클론’이라고 불리는 조립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IBM은 콜센터와 IT아웃소싱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S50 데스크톱PC를 인도 시장에 내놓았다. IBM은 기업용 데스크톱 시장에서 12.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연간 47~48%의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용 제품에 비해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소비자 및 홈오피스 시장이다.

인도의 컴퓨터 보급률은 1% 이하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터무니없이 높은 PC가격이 주요인이었는데 최근 12개월간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년전에 비해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IDC의 리시 가이 애널리스트는 “인도의 데스크톱, 노트북 판매는 2008년까지 25% 증가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인도 PC보급이 2,90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日 ‘제3의 평판TV’ 바람 부나

‘TV왕국 일본에 ‘제3의 평판TV’ 바람이 불 것인가’

아테네 올림픽 특수로 LCD 및 PDP 등 평판TV시장이 급성장 추세인 일본에서 최근 프로젝션(투사형)TV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비록 각 가전업체들의 본격적인 제품 출시는 내년 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로젝션TV가 평판TV 기종 전반의 판매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선발업체들이 제품 출시를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제3의 평판TV’ 시장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가전업체가 미국 등 해외에서 먼저 투입한 프로젝션TV는 1인치 전후의 소형 LCD 화면을 렌즈로 확대한 구조다. TV 본체 배면의 거울에서 전방에 영상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리어(후방) 프로젝션TV라고도 불리운다.

미국의 올해 리어 프로젝션 TV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3% 성장한

310만대로 전망되고 있다. 점유율 1위 업체인 소니는 ‘가격이 PDP의 절반 수준이며 소비 전력도 낮아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분석한다.

비록 LCD TV 등과 비교하면 폭이 두꺼워 공간을 더 차지하지만 집이 넓은 미국이나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 성장이 기대된다.

◇일본 업체, 내수 시장 잇따라 진출=주요 업체 중 일본 국내시장에 먼저 제품을 출시한 세이코엡손은 ‘리빙스테이션’이란 제품을 PC제품과 같이 인터넷 및 전화, 팩스 등의 수주 생산 방식으로 지난 5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엡손으로서는 업무용 프로젝터 출시 이래 본격적인 가전시장 진출인 셈인데 ‘1인치당 1만엔’ 전략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회사 제품의 가격은 47인치·57인치 각각 46만엔·56만엔에 불과하다.

올 연말부터 제품을 출시하는 산요전기는 ‘마이크로디바이스플래티스플래이’란 이름으로 55인치제품을 투입한다. 측면의 폭이 40cm로 PDP TV와 비교하면 조금 크지만 명실상부한 평판TV 제품군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도 북미에서 먼저 판매 개시한 프로젝션TV의 내수 판매를 연내 개시한다. 62인치부터 투입할 예정인데 “핵심영상부품의 성능이 크게 향상돼 화질에 민감한 일본 소비자들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프로젝션TV, 뜨는 이유는=일본 업체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해외시장에 리어프로젝션TV를 판매했으나 그다지 높은 판매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당시는 영상장치가 소형 브라운관이어서 확대표시할



경우 화질 수준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들어 각 사들이 LCD를 사용한 신형 부품을 개발하면서 화질이 크게 개선됐다. 미쓰비시가 미국에 판매하는 제품에는 'LCOS'라는 고성능 부품이 장착됐다. 이 부품은 하이비전 영상을 표시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일본빅터(JVC)나 소니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성능 부품을 채용하고 있다. JVC는 'D-ILA'라는 핵심부품을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다. 소니도 고정밀 하이비전 규격에 맞는 LCD를 리어프로젝션TV에 장착했다.

업체들로서는 1,000억엔대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평판TV용 패널에 비해 프로젝션TV용 부품은 수십억엔에 양산이 가능한 점도 매력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투자 대비 이익'에서 프로젝션TV가 짝짤하다는 것이다.

평판TV 시장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그동안 PDP인가, LCD인가를 놓고 고민하던 일본시장에 제3의 평판TV인 '리어프로젝션'이 등장함에 따라 3파전 양상으로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휴대폰용 디지털TV칩 2007년 출시 예정

TI가 휴대폰에서 디지털TV를 수신할 수 있는 싱글칩 '할리우드'를 오는 2007년 출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와 실리콘스트래티지스 등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TI가 개발중인 '할리우드'는 튜너를 포함한 디지털 비디오 리시버, OFDM 디모듈레이터, 그

리고 이전에 셋톱박스에 장착했던 채널 디코더 프로세서 등 각각의 솔루션을 하나로 집적한 디지털TV폰용 싱글칩이다. 이 칩을 적용한 디지털TV폰을 이용하면 초당 24~30 프레임으로 풀오디오와 함께 생방송을 볼 수 있다. 또 유료 프로그램이나 쌍방향 텔레비전, 메뉴 및 가이드 시스템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TI측은 설명했다.

TI는 90나노 제조공정에 맞게 설계된 이 칩이 2006년 샘플 출시를 거쳐 2007년 대량 생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서 필드테스트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할리우드 디지털TV칩은 유럽 디지털방송 방식인 DVB-H와 미국 및 일본 등으로 확대 예정인 ISDB-T를 함께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HP, 日 디지털 가전시장 진출

미국 휴렛팩커드(HP)가 일본 디지털 가전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이 보도했다.

HP는 다음 달부터 홈시어터용 프로젝터인 '시네마디지털프로젝터' 시리즈를 일본 시장에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이 시리즈는 미국에서 지난 9월 출시한 제품군으로 우선 11월 중순에 DVD플레이어 등과 접속해 사용하는 2개 기종, 12월에는 DVD 재생기능을 내장한 1개 기종을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디지털가전시장 공략을 선언한 HP가 일본 시장에 홈시어터용 프로젝터를 우선 투입하는 것은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일본업체들과 평판TV 등에서 곧바로 경쟁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시장에 출시한

평판TV도 일본업체들과의 경쟁력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쟁업체가 비교적 적은 프로젝터를 우선 출시해 일본 시장에 연착륙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네마디지털프로젝터 시리즈는 영상을 출력하는 광원으로 텍사스인스트루먼트의 DLP(디지털라이트프로세싱) 소자를 사용해 선명한 화질을 실현했다. 가격은 15~25만엔이며 판매 방식은 가전 양판점과 인터넷 판매를 동시에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가정용기기 책임자인 비요메슈 조지 부사장은 "미국 판매 상황 및 일본 시장 현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기타 디지털기기의 일본 판매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본에서는 경쟁업체가 많지 않은 혁신적인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평판TV 및 MP3 이외 제품의 투입을 시사했다. 현재 HP의 일본내 매출은 약 4,000억엔이며 오는 2010년 1조엔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IBM, 지문인식 기능 새 노트북PC 19일 출시

IBM이 지문인식기술을 적용한 노트북PC '씽크패드 T42'를 이달 19일(현지시간) 출시할 예정이라고 C넷이 보도했다.

씽크패드 T42는 노트북PC의 손목 받침대 위, 화살표키 아래에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읽어들이는 지문인식기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지문인식기의 센서를 통해 지문정보를 입력, 노트북PC의 소유자임을 확인받아야만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임베디드 칩·패스워드 관리SW와 함께 작동돼 암호화키·전자증명서·암호 등도 보호할 수 있다. 썬크패드 T42는 두께 1인치, 무게 4.5파운드로 IBM의 인터넷 쇼핑몰과 협력업체에서 1,699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한편 IBM은 이번 노트북PC 출시에 앞서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해커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칩을 PC에 탑재해 선보였다.

IT업체 3분기 실적 양호, 4분기 전망도 밝아

주요 IT업체들이 3분기 실적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4분기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순익과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거둔 마이크로소프트·IBM·인텔·야후 등 주요 IT업체 4사는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MS는 자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1분기(7~9월) 순익이 2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26억1,000만달러보다 11.1% 증가한 수치다. PC와 서버 출하량이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SW 판매도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기간 MS의 매출액은 91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의 82억2,000만달러보다 12% 증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예상치 89억9,000만달러와 MS의 예상치 89~90억달러를 모두 넘어섰다.

MS는 2분기(10~12월)에 103억~105억달러의 매출액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BM은 3분기에 전년 동기의 17억9,000만달러보다 0.6% 늘어난 18억달러의 순익을 기록했다.

NEC 등 15개사, 8개 지자체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나서

NEC, 후지쯔, NTT데이터 등 일본의 정보시스템 관련 15개사가 미야기현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5개사는 미야기, 후쿠오카, 와카야마, 사가, 도쿠시마, 구마모토, 이와테, 니가타 등 8개 지자체의 개인 인증 등 행정수속에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시스템 기반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의 본격 가동 시기는 내년이다.

이를 위해 NEC 등은 내달 특정 비영리활동(NPO) 법인인 '오픈스탠더드지원컨소시엄'을 설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히타치제작소, 도쿄전력, NTT커뮤니케이션스, 일본오라클, SAP재팬, 미쓰이물산전략연구소 등이 참가한다. 일본 지자체들의 전자정부시스템 투자액은 내년까지 총 6,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시스템의 표준화로 최대 3,000억엔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EC-소니, PC시장서도 격돌

차세대 DVD 규격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NEC와 소니가 PC 내장형 DVD플레이어 시장에서도 일대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니혼게이지아신문은 NEC와 소니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PC 내장형 차세대 DVD 플레이어를 각각 상품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양사가 PC를 통해 주도권 확보에 나

섬에 따라 차세대 DVD 플레이어 시장의 주도권 분쟁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NEC는 도시바와 함께 'HD-DVD' 진영에 소속돼 있으며 소니는 마쓰시타, 삼성전자 등과 함께 '블루레이 디스크'를 업계 표준으로 제안하고 있다.

NEC는 내년 여름을 목표로 데스크톱 PC 내장형 재생 전용 DVD 플레이어의 생산을 개시하며 데이터 입력이 가능한 노트북 내장형 DVD 리코더의 실용화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소니는 재생과 기록이 모두 가능한 PC 내장형 DVD 플레이어를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2(PS2)'의 차세대 게임기에도 블루레이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NEC, 세계 초고속 슈퍼컴퓨터 개발

일본 NEC가 IBM의 초고속 슈퍼컴퓨터보다 속도가 거의 두배 정도 빠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개발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NE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X-8'로 명명된 새 슈퍼컴퓨터에 대한 주문이 영국 기상청을 비롯해 이미 100대가 들어왔다면서 향후 3년내 700대를 선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C는 이 슈퍼컴퓨터의 선적이 12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간 임대료가 약 117만엔(1만771달러)부터 시작되는 NEC의 슈퍼컴퓨터는 초당 65조회의 연산능력을 갖고 있다. IBM도 지난달 초당 36조회의 연산을 수행하는 '블루 진/L' 슈퍼컴퓨터를 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NEC의 슈퍼컴퓨터인 '어스 시뮬레이터'의 연산능력은 35조8,600회였다.